

# 코람데오 성서대학

## 제 3 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 외울말씀

마태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교의 중심:** 그리스도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거나, 그리스도와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 10:23~38)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공부합시다.

### 말씀열기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난다음 월레스 장군과 로버트 잉게르솔 대령이 함께 기차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저런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간으로서의 예수, 친구로서의 예수, 인도주의자였던 예수로 단정했습니다. 그때 잉거르솔 대령이 월레스 장군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장군님,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적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만일 장군님이 예수는 순박한 사람 중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과난 글을 쓰면 그들이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장군도 그 제안에 전적으로 찬성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 퇴역한 장군은 예수에 대한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하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찾으면서 2년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관한 쓰다가 생각이 달라져 무릎을 꿇고 예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격이 어쩔 수 없이 확증되었던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여! 당신은 지금 내게 누구십니까? 생명을 걸고 물어봅시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과에서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 2격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 1.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요일 5:20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는 '존경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과거의 인간'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3:16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외아들이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외아들'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 2.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요 1:1~3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의 근원에 속한다고 믿으며,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예수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존재나 시간이 생기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고,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하셨으며, 제자들에게 그를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였고, 그렇게 전하게 하였고, 그렇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란 빼앗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아들로 태어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본래적인 것이지 우연일 수 없습니다.

### 3.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딤펢전 2:5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 말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 분이 행하신 일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 2:6~8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인 예수님을 두려워 않고, 그 분을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신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 4. 예수님은 친히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마 24:30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인자(人子, Son of God)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인간의 특징들: 여인의 몸을 통해 탄생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났고, 시험을 받으셨으며,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때로는 노하시고, 괴로워도 하시고, 근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눅 1:31, 35

우리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탄생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 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특별한 방법을 통해 오셨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특별한 과정을 통했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시되 사람이 아님을 증거 하는 표적인 것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마디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Vere Deus Vere Homo - True God True Man**

## 5.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주장이 그릇된 경우입니다. 여기에 또 다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주장이 그릇된 것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는 정교한 허위 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위선자입니다. 그는 악마입니다. 영생을 위해 자신을 믿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막 14:61~64, 요 19:7)

또 다른 가능성은 그가 자신의 주장이 그릇됨을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유일신을 매우 극렬하게 주장하는 문화 영역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믿는 신앙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게 한다고 말했다면, 그는 환상에 빠진 정신이상자입니다. 그는 미치광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주장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주님이 맞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그 사실을 받아드리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실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적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선택할 일입니다. 선택하십시오.

\* 사기꾼 .....  \* 정신병자 .....  \* 사실 : 하나님 .....

### 생각해 봅시다.

왕자가 시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천한 마부가 자기 주인집의 도령보다 이웃 대장장이와 더 친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신병교육대에서 중대장이 훈련병이 되어 직접 체험해본 이야기나 학생이 겪어본 교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봅시다.